

드라마 왕국과 과학 드라마

글 | 박성철 _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 강사 sc0314@freechal.com

우리 나라 텔레비전은 드라마 왕국이다. 시청률 조사를 하고 있는 TNS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6월 첫째 주 주간시청률 20위 안에 든 프로그램 가운데 10개가 드라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SBS의 '조강지처클럽'을 필두로 해서, MBC의 '이산', KBS2의 '엄마가 뽀났다'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고, '너는 내 운명', '행복합니다', '일지매', '천하일색 박정금' 등이 뒤를 잇는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자들만 드라마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다. 간혹 월드컵예선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끼어드는 것을 제외하면, 남자들도 드라마를 즐기는 건 마찬가지다.

주간시청률 20위 안에 드라마가 10개

이러한 '드라마 중독'의 TV시청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오히려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출범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크게 증가했다. 이 방송들은 지상파방송과 달리 채널별로 특정 장르의 프로그램만을 편성한다. 영화채널에서는 영화만, 뉴스채널에서는 뉴스만 볼 수 있는 식이다. 여기서도 드라마의 인기는 변함없다. 200개가 넘는 채널들 가운데, 지상파방송의 드라마를 재방영하는 채널(MBC드라마넷, SBS드라마플러스, KBS DRAMA)들끼리 시청률 1, 2위를 다툰다. 지상파에서 본 드라마를 케이블과 위성을 통해 재방영하고 있는 셈이다. 유일한 경쟁 상대는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채널(투니버스, 챔프) 정도다.

안타깝게도 프로그램 시청률 순위에서 과학 프로그램은 찾아볼

수 없다. 정통 과학다큐멘터리는 물론이고, 과학지식이 소개되거나 과학자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조차 없다. 20위 내에 든 프로그램 가운데 드라마를 제외하면, 'VJ특공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긴급출동 SOS24' 정도다. 이 프로그램들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락 장르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가볍고 일상적인 정보들이며, 여전히 부담 없이 웃고 떠들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KBS 뉴스9'만이 간신히 12위에 올라 '언론'으로서의 체면을 살려주고 있다.

그리고 보면, 텔레비전은 언론매체라기보다는 오락매체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텔레비전을 과학지식의 확산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준다. 오락을 목적으로 텔레비전을 켜는 시청자들이 과학프로그램을 선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 오락을 추구하는 시청자들에게 과학 지식의 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텔레비전에서 과학을 다루기에는 다큐멘터리 장르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논리적 전개과정 또한 과학의 속성과 어울린다. 다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 그렇다는 뜻이다. 시청자들이 다큐멘터리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정보습득을 위한 매체로 여기지 않는다면 보다 정교하고도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한 가지로 드라마라는 장르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시청자를 울리고 웃길 것인지 궁리하는 드라마라는 장르에 '과학'이라는 소재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프로

그럼에 대한 시청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전해 볼 만하다. 이미 외국의 몇몇 과학·의학 드라마는 전문가와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냄으로써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범죄현장을 조사하는 과학수사대를 소재로 한 'CSI'나 종합병원 응급실을 배경으로 한 'ER'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과학에 대한 이해의 증진이나 지식의 확산에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큰 인기 끌었던 의학소재 드라마

그런 점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에 걸쳐 연이어 방영된 의학 소재 드라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MBC의 '하얀거탑'과 '뉴하트', SBS의 '외과의사 봉달희'는 병원을 배경으로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소재로 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 드라마들은 단지 전문직을 배경으로 하는 연애드라마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부터 메디컬드라마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과학'의 입장에서 이 드라마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 같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당사자이자 전문가인 의사들은 가장 먼저 세부묘사의 구체성과 사실성에 주목할 것이다. 즉, 전문적 의학지식과 자신들의 실제 생활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은 어렵지 않게 실제 현실과 다르거나 차이가 나는 장면들을 지적할 것이다.

예컨대, '봉달희'에서 교통사고로 비장출혈과 다리를 다친 어린 여자아이를 치료하는 장면에서 의료진은 발레리나가 꿈인 아이를 위해 다리 수술을 먼저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비장출혈은 초응급 수술이 필요하지만 다리 수술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얀거탑'에서 열이 나는 환자를 두고 외과 레지던트가 장준혁의 처방만을 기다리며 아무 조치도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장면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정상적인 종합병원이라면 당연히 감염내과 의사에게 의뢰를 해서 항생제 처방을 받기 때문이다.

의료현장의 전문가인 의사들은 위의 사례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오류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처럼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묘사는 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잘못된 의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의학지식을 오해하게 만든다고 비판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과 비판은 중요하며, 제작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학드라

마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확대되어서도 곤란하다. 이것은 의학드라마가 시청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학드라마는 전문적 의학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시청자의 생각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시청의 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깊게 평가되어야 한다. 시청자들이 얻게 되는 지식도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의학적 전문지식이다. 제세동기, 카디악 어레스트, 브이텍, 오피캡, 오토플랜테이션, 에크모 등 일반 드라마에서는 접하기 힘든 의학 전문용어와 지식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의료와 관련된 상황지식이다. 예컨대, '봉달희'에서는 호흡 곤란이 발생한 사람을 기흉 상태로 판단한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일시적 호흡곤란 증상도 때로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세 번째는 의료시스템과 환경에 대한 지식이다. 예컨대, 병원 내에서 레지던트의 지위와 역할이 어떠한지, 의사의 '오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것이다.

'CSI' 넘은 과학드라마 제작 기대

일반인들에게는 의학적 전문지식보다도 상황지식이나 배경지식이 더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낯선 전문지식은 쉽게 잊혀지는 반면 자신의 경험이나 구체적 상황과 연결된 배경지식이나 상황지식이 오래 기억될 수도 있다. 즉, 전문지식이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았고 해서 드라마의 또 다른 효과나 영향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단지 이러한 지식의 전달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근엄하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의사를 드라마를 보고 나서 감정을 가진 동일한 인간으로 여기게 되었을 수 있다. 의사에 대한 이미지나 병원에 대한 태도의 변화도 의학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끼치는 중요한 효과 가운데 하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하얀거탑'과 '뉴하트', '외과의사 봉달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새로운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질 때, 'CSI'나 'ER'를 뛰어넘는 과학·의학드라마의 등장이 가능할 것이다. ㉔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과학커뮤니케이션으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강대 과학문화아카데미 교수부장, 국회 입법정보연구관을 지냈다.